

EC경제 및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에 대한 EC통합의 의미*

권 오 복**
최 세 균***

- I. 머 리 말
- II. EC 통합의 주요 내용
- III. EC 통합이 역내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 IV. EC 통합이 한국 농업에 주는 의미
- V. 맺 음 말

I. 머 리 말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발족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EC)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블록이다. 회원국수도 설립당시 6개국(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3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되어¹ 인구는 3억 2천만명에 이르고 역내 총생산은 3조4천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EC는 유럽의 또다른 경제블록체인 유럽 자유 무역 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국가들과²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을 제외한 거의 전부분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오고 있다.³ 또한 동구의 개방에 따라 헝가리, 체코와 같은 동구제국들과도 제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은 EC를 축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시장권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양적인 확대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질적인 확대이다. 국경없는 단일 시장의 형성,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EC는 1992년말을 목표로 시장통합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1991년 3월말 현재

* 연구보고 239의 내용을 정리, 보완한 것임.

** 연구원

*** 책임연구원

¹ 추가로 가입한 국가를 보면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다.

² 유럽자유무역연합은 1960년 스톡홀름조약에 의해 관세동맹을 추구하는 EC에 대항하여 자유무역지대형성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6개국이다. 당초 회원국이었던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은 EC에 가입함으로써 탈퇴하였다.

³ 1973년 EFTA회원국인 영국과 덴마크가 EC에 가입함에 따라 EC와 EFTA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공산권에 대해 하나의 단일 시장권을 형성하였다. 농수산물은 개별국가간 개별 협정에 의해 무역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제외되었다.

EC통합은 약 7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1992년 말까지 EC통합이 완성될 수 있을 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통합EC에 대한 역외국가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이면에는 통합된 EC가 요새화되어 자국의 대 EC수출이 줄어 들지나 않을 까하는 우려와 함께 확대된 시장에의 진출가능성이 커지지 않을 까 하는 기대가 병존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EC통합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에도 우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인데 농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EC통합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EC농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며, 역외국, 특히 우리 나라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하는데 자료의 제약등에 따라 주로 서술적 방법에 의존하였다.

II. EC통합의 주요 내용

EC통합은 1985년에 발간된 경제통합에 관한 백서(White paper)와 1987년에 제정된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통합백서에는 단일시장의 구성을 위해 회원국간 합의를 보아야 할 300여개에 달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반면 유럽단일의정서는 EC통합을 위한 입법장치를 제공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중다수제(qualified majority)⁴를 도입하고 단일시장 완성

목표시기로서 1992년 12월 31일을 명시한 점이다. 이러한 입법장치위에서 EC는 국경없는 단일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상품, 노동,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EC통합작업이다.⁵

1. 물리적 장벽의 제거

국경에서의 물리적 장벽이란 역내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나 개인에 대한 통제의 형태로 존재하는 장벽을 의미한다. 예컨대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세관에서 사람 및 상품에 대한 검사·통제가 이에 속한다. 국경에서의 이 같은 장벽은 역내 주민으로 하여금 EC가 하나가 아닌 국별로 분할 되어 있음을 강하게 인식케 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간 상품과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케 하는 것이다. EC집행위원회는 1992년말까지 국경없는 유럽(Europe without frontiers)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모두 철폐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람의 국경 통과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①개인 면세품 소지범위를 350ECU에서 375ECU로 확대하고, ②출입

⁴ 가중다수제단 각 회원국들의 ADP에 의거한 총 76표에서 60%인 54표를 얻을 경우 제안이 채택되는 제도이다. 회원국별 부여된 표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각 10표, 스페인 8표,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각 5표, 덴마크, 아일랜드 각 3표, 룩셈브루크 2표 등이다(EC, 1987).

⁵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도용환외, 1989; 민충기, 1990; 박성조, 1989; 전국경제인 연합회, 1989; Brealey and Quigley, 1989; US Department of Commerce, 1989; Chintopher, et al., 1989.

국시 모두 받던 출입국검사를 출국시에만 받도록 하고 역내 국경에서 경찰통제를 완전히 철폐하기 위하여 역내 주민들에게 공통체여권(European-model passport)을 발급하여 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공동체 외곽 국경에서의 경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C에서 상품의 역내 교역에 대한 관세와 수량제한은 모두 철폐되었지만 국경에서는 징세(徵稅), 동식물질병유입의 방지등을 위해 세관통제와 통관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역내 단일시장의 완성을 어렵게 하여 왔다. 상품에 대한 국경통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는 ①공동세관(Common border posts)의 도입을 통해 수입국에서만 통관절차를 밟도록 하고, ②70여종에 달하던 통관관련 행정서류를 단일행정서류(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 SAD)로 통일하여 통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③동식물검역에 의한 상품의 국경통과제한을 없애기 위하여 검역 및 위생기준을 공동체 전체가 조화(harmonize)시키며 검역은 수출국에서만 실시할 것 등이 제한되고 있다.

2. 기술적 장벽의 제거

역내 국가간 상품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이란 회원국들이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운용하는 각종 상품표준과 법규의 형태로 남아 있는 장벽을 말한다. 물리적 장벽이 가시적인 장벽이라고 한다면 기술적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벽이다. 이러한 장벽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저해하고 역내 시장의 분할, 연구개발의 중복,

유통비용의 상승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을 낳게 하고 있다.

기술적 장벽 제거를 위한 조치들로는 ①상품이동의 자유화, ②공공구매시장의 개방, ③노동 및 전문 직업인 이동의 자유화, 그리고 ④서비스 공동시장의 실현등이 있다. 이 가운데 농업과 식품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는 상품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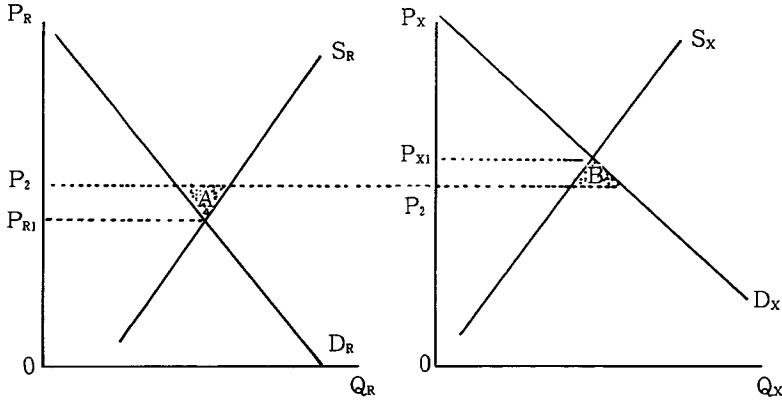
과거 25년동안 EC는 각 회원국간 상인 표준규격과 법규로 인한 상품이동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공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부터는 공동기준의 제정보다는 관련 기준을 회원국별로 상호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방식을 전환하였다. 각종 표준규격, 표시·함량·포장 등에 관한 법규들을 조화시킨다는 것인데⁶, 이것이 실현될 경우 역내의 무역은 물론 역외 국가와의 무역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

3. 재정적 장벽의 제거

재정적 장벽이란 회원국간 상이한 조세구조에 의해 기인되는 장벽을 말한다. 각 회원국간 조세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무역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장벽의 제거는 물리적 장벽의 제거와 함께 EC통합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재정적 장벽의 제거를 위하여 EC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VAT)와 물품세(Excise Tax)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회원국별 부

⁶ 이의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EC회원국이 특정제품의 기술명세와 표준을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EC집행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림 1 무역장벽제거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



가가치세의 조화범위는 경감세율이 4~9%, 표준세율이 14~20%로 제안되고 있다. 여기에서 경감세율이란 알콜음료를 제외한 식료품, 난방 및 광열을 위한 에너지 공급, 수자원 공급, 의약품 등에 부과되는 저세율을 의미한다. 물품세는 주로 담배와 알콜음료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국간 물품세 구조를 조화시키도록 제안되고 있다.

계측되어 왔다. 그러나 '92EC통합은 관세인하 내지 철폐가 아닌 역내의 각종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로 관세철폐의 효과를 다룬 기존의 관세동맹이론을 가지고 이 효과를 계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하에서는 단순화한 모형을 이용하여 '92EC통합의 경제적 의미를 검토해보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EC통합의 종합효과를 파악하기로 한다.

가. 가격하락에 따른 후생의 변화

Ⅲ. EC통합이 역내 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EC통합과 EC경제의 변화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통합에 가담하는 국가의 생산, 소비, 무역, 소득분배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金秀勇, 1986). 이러한 경제통합의 효과는 관세동맹의 이론⁷에 의하여

(그림1)은 EC역내의 X국가가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의 다른 국가들과 가격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EC역내 국가와 X국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X국은 수입규제를 통하여 국내 가격을 P_{x1} 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여타의 역내 국가들의 가격은 P_{R1} 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X국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수입을 자유화하면 역내의 가격은 P_2 에서 동일하게 된다. 이 결과 X국은 생산자잉여의 감소를 증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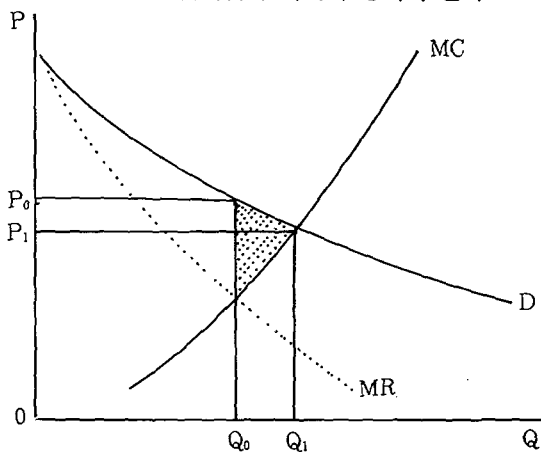
⁷ 관세동맹에 관한이론은 다음을 참조할 것 : Viner, 1950 ; Lipsey, 1960 ; Jones, 1981 ; 민병해, 1990.

소비자 잉여의 증가로 삼각형 B만큼의 잉여가 발생한다. 반면 X국을 제외한 EC 국가들은 생산자잉여의 증가로 삼각형 A만큼의 잉여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통합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의 제거로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나. 독점제거에 따른 사회적 잉여의 변화

〈그림 2〉는 독점화된 기업이 경쟁적 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사회적 잉여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독점기업은 독점력의 행사로 경쟁가격 P_1 보다 높은 P_0 에서 OQ_0 만큼을 공급한다. 그러나 각종 장벽이 제거되고 경쟁상태가 되면 P_1 이라는 낮은 가격에서는 OQ_1 만큼을 공급하게 된다. 이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빗금친 부분만큼의 순잉여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독점기업과 사회적 잉여의 변화



다. 자원의 자유이동과 생산성 증대

EC통합의 진전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림 3〉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한다.

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A국과 B국의 노동력 총량을 나타낸다. A국의 노동력이 B국보다 풍부하며 임금도 B국보다 저렴한 W_1 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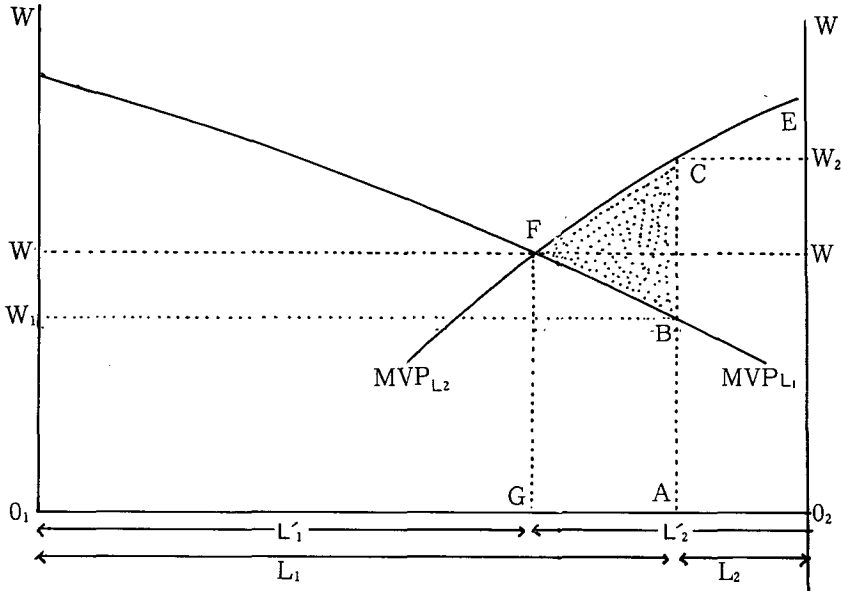
각국은 노동의 한계가치 생산성(MVP)과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력을 고용한다. 이때 A국은 L_1 , B국은 L_2 를 고용하게 된다. 이것은 A국과 B국의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가정때문이다. A국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W_1 \times L_1$ 으로 〈그림 3〉에서 직사각형 W_1BAO_1 이 된다. A국의 자본에 대한 보수는 DBW_1 이 된다. B국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W_2 \times L_2$ 로 그림3에서 직사각형 W_2CAO_2 이며 자본에 대한 보수는 ECW_2 이다.

A국과 B국의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양국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임금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임금은 W 에서 결정되고 A국은 L_1' 만큼의 노동력을, B국은 L_2' 만큼의 노동력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이때 A국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L \times L_1'$ 으로 그림3에서 직사각형 $WFGO_1$ 이며 자본에 대한 보수는 DFW 가 된다. B국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W \times L_2'$ 이고, 자본에 대한 보수는 EFW 이다. 결국 양국간의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자본과 노동에 대한 보수의 합은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비해 FBC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은 잠재적으로 경제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 EC통합의 종합효과

이상에서 EC통합에 따른 효과를 단순화

그림3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잉여의 변화



한 그림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EC통합의 종합효과를 검토해 보기로 하는데 Emerson의(1988)의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미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EC 7개국의 장벽 제거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는 650~800억 ECU이다(표 1). 이는 EC GDP의 2.2~2.7%에 해당하는 것이다. 장벽 제거로 인한 간접효과 또는 규모의 경제

표1 부분균형모형에 의한 EC통합효과(EC7개국)

통합효과	절대액 (10억ECU)	GDP에 대한 비율(%)
무역장벽제거	8- 9	0.2-0.3
기타장벽제거	57- 71	2.0-2.4
규모의경제	60- 61	2.0-2.1
X - efficiency 등	46	1.6
계	171-187	5.8-6.4

자료 : Emerson의, 1988.

와 X-efficiency는 460억 ECU(GDP의 1.6%)로 추정되고 있다.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EC통합에 의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GDP의 4.5%에 해당하는 잉여를 발생시키고 소비자물가는 6.1%하락시키며 180만명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EC통합으로 EC경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EC통합과 EC농업의 변화

물론 300여개에 달하는 EC통합지침 가운데 EC의 농업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명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침의 35%인 105개가 농산물 및 식품분야와 관련을 갖고 있다. 이것들을 주로 ①인간·동식물

표2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EC통합효과

구 분	무역장벽	정부조달	금융	생산증대	계
GDP에 대한비율(%)	0.4	0.5	1.5	2.1	4.5
소비자물가(%)	-1.0	-1.4	-1.4	-2.3	-6.1
고용(1,000명)	200	350	400	850	1,800
국제수지(GDP에 대한 비율, %)	0.2	0.1	0.3	0.4	1.0

자료 : Emerson외, 1988.

건강규정의 조화, ②세계의 조화 그리고 ③ 기준의 조화등이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국경없는 단일시장 형성원칙에 위배되는 통화보상금 제도, 생산할당제, 국별농업보조 등의 운영이 곤란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농업정책도 EC통합의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EC의 농업생산, 소비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에서는 주로 서술적인 방법이기기는 하지만 이점들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농업생산

EC 시장단일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①공동농업정책의 수정, ②농업투입재 가격변화, 그리고 ③경쟁조건의 개선 등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EC통합의 추진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공동농업정책은 통화보상금(Monetary Compensatory Amounts:MCAs)제도⁸와 생산할당제이다. 운용시 국경장벽으로 작용하여 왔던 통화보상금제도는 국경없는 단일시장형성 정신에 합치되지 않는다(Commission of the EC, 1988 ; Manegold, 1989 ; josling, 1990 ; Swinbank, 1990). Ec통합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역내 농산물의 가격수준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연구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⁹ 단지 분명한 사실은 역내 국가간 농산물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그에따라 생산에서 가격의 역할이 증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EC 농업을 보다 분업화, 전문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EC에서 우유와 설탕의 과잉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별 생산할당제도도 EC통합의 추진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다. 통합 EC에서는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어떠한 장벽이나 제도도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91농업개혁안에는 92년도 이후에도 우유에 대한 생산 할당제는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⁸ MCAs는 EC가 역내에서 단일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이다. 각종 지지가격을 유럽통화인 ECU로 표시하고 각나라의 화폐로 확산할때 미리 정해진 농업환율(Green Rate)를 이용한다. 그러나 농업환율에 비해 환율이 고평가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농산물가격이 높게 평가된다.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시 수출보조금을, 수입시에는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국경장벽으로 기능해 왔다.

⁹ EC집행위원회는 MCAs가 폐지되면 역내 농산물 가격이 점진적으로 세계시장가격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각료이사회는 현행 가격 수준의 최고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Commission of the EC, 1988). 조슬링(Josling)도 MCAs가 폐지되면 역내의 평균농산물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음을 본다(Josling, 1990).

해결되면 이 제도는 폐지 또는 수정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지가격의 인하속에서 이들 품목의 생산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생산구조는 소농에서 중·대농 중심으로 옮겨가 생산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농업정책의 보완수단으로 각국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국별 보조는 EC 전체 농업보조 중 약 31~4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 역시 회원국간 경쟁 구조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통합 EC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가격의 인하와 같이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에 따라 국별 농업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단지 그러한 국별 농업지원 프로그램은 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주는 직접소득보조방식을 따를 것이다. 이로 인해 EC농업은 분업화와 전문화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EC통합이 EC농업에 줄 수 있는 또하나의 영향은 농업생산비의 절감에 따른 효율제고 내지 생산성 증대이다. 이것은 규모의 경제 달성, 기준 및 규격의 통일, 경쟁환경의 개선 등에 따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투자재가 보다 저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EC통합은 EC농업생산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분업화, 전문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나. 농산물 소비

EC전체로 볼 때 농산물 소비는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¹⁰ EC 시장단일화가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 측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시장단일화로 GNP가 늘어나고, 따라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대하는데 따른 소비 증가와 소비의 대체효과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면 절대적인 소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구조도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소비가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비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상대적으로 저소득국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는 다소의 소비증가가 예상된다. <표 3>은 이들 4개국의 식품소비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다면 소비량에서 EC평균보다 적은 과일류와 육류의 소비가 다른 품목의 소비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득 증가에 따른 EC의 소비대체 방향은 곡물류와 육류 등의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과채류와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서와 같이 건강식품 또는 저카로리식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다.

둘째, 가격 변화에 의한 소비 변화이다.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에 따라 지지가격이 인

¹⁰ EC 국민 1인당 주요품목의 연간 식품소비량은 다음과 같다.

품목 연도	단위 : kg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쇠고기	돼지고기	육류전체
1968/69	85	99	65	25	25	68
1988/89	84	117	61	20	40	87

자료 : Commission of the EC, 1991.

표3 EC4개국의 1인 1년간 식품소비량(1988/89)

단위:kg

구 분	EC평균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곡 물 류	84	106	72	101	90
소 맥	73	105	70	87	74
감 자	79	87	97	142	94
채 소	117	205	182	95	125
과 일	61	49	40	34	36
육 류	87	71	87	87	60
쇠 고 기	20	16	11	19	12
돼지고기	40	22	45	35	24

자료 : Commission of the EC, 1991.

하되고 EC통합으로 농업이 보다 시장 지향적·경쟁적으로 되면 역내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추정되고¹¹있다. 이 경우 특히 저소득 회원국에서는 육류나 곡물류의 소비가 확대될 것이다.

셋째, 국경장벽제거로 역내 국가간 농산물 무역이 촉진되면 소비자는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EC통합으로 EC의 농산물 소비는 절대적인 소비량이 늘어나고 보다 양질의 식품으로 식품소비유형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내 농산물의 과잉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농산물 무역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C통합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이 변화될 것이고 이것

은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보다는 무역장벽제거에 의한 변화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경세(border tax)와 같은 국경에서의 무역장벽, 표준규격, 그리고 기타 상업법규 등과 같은 기술장벽의 완화 내지 제거로 당초의 EC설립과 세 차례에 걸친 EC확대과정에서 생겨난 무역창출효과를 더 크게 할 것이다. EC시장단일화로 EC의 역내 농산물 무역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종래 국경세 또는 보조금으로 기능하여 역내간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 통화보상금 제도가 철폐되어 농산물 무역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국별로 상이한 동식물 검역과 위생규정을 조화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검역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되어 농산물의 수출입이 용이해 질 수 있다. 셋째, 표준규격, 함량기준, 포장, 상표표시 등 각종 기준 또는 규격이 조화됨으로서 수출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입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동식물 검역과 위생기준이 조화될 경우 종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던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문호가 낮아져 지중해 연안국가들의 농산물 그 중에도 특히 과채류 등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IV. EC 통합이 한국 농업에 주는 의미

1. EC통합이 역외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

EC통합이 역외의 특정 국가에게 미치는

¹¹ 이와 관련 시치니(Cecchini)등은 EC통합후 역내의 소비자 물가는 4.5~7.7%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Cecchini, et al., 1988.).

영향은 크게 보아 ①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와 ②세계 교역질서, 예컨대, UR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는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직접효과라고 한다면 후자는 간접효과에 해당된다.

물론 간접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역외국이 보다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직접효과이다. 직접효과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역창출효과에 따라 대 EC수출이 늘어나는 효과이고 둘째는, 무역전환효과 등에 따라 대 EC수출이 줄어드는 효과이다. 역시 전자는 역외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EC통합이 역외 국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①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창출과 이에 따른 역외 국가들의 수출기회 확대

②동식물 검역·위생관리기준, 각종 기준에 관한 규정의 조화로 수출비용 절감

③역내 국경장벽의 제거로 인한 시장 개방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EC통합이 역외국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①현재보다 강화된 법규나 검역기준 등을 제정시 새로운 무역장벽 직면

②역내 무역 촉진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발생에 따른 대 EC수출감소

③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대응개방 요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EC통합이 계획대로 1992년말에 완결될 경우 UR농산물협상은 EC의 입장이 그렇지 않는 경우 보다 더 크게 반영될 공

산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EC가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공동농업정책을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개혁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공동농업정책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고 EC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될 수록 EC의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UR농산물 협상에서 총체적 접근(global approach)과 분리적 접근(separate approach)이라는 농업보조의 감축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EC간의 논쟁은 쉽게 타결점을 찾을 것 같지 않으며 감축폭도 당초 미국이 제시한 75%보다는 훨씬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EC통합이 성공적으로 종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세계 농산물시장 사정은 다소 개선되리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EC통합으로 역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둘째, GNP 증가 등으로 역내 식품 수요가 증가하여 EC의 과잉농산물 문제가 일부 해소되며, 셋째, 농업생산비 절감에 따른 농업소득 증가로 가격 및 소득지지를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예산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EC의 과잉농산물 수출압력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EC통합이 한국농산물 무역에 주는 의미

미국이나 일본 등 여타 지역에 비해 EC와 우리 나라와의 농산물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인지 우리 나라 농업분야는 EC통합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EC통합은 분명 우리 나라 농업에 대해서도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의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되면 될 수록 EC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산물 교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EC의 통합은 무역창출효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물론 역으로 EC가 역외국에 대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고, 말 그대로 배타적인 요새화가 될 경우 우리 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이 어렵게 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EC 농산물 수출이 감소한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개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가. 긍정적인 영향

EC통합이 우리 나라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 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길이 넓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단일화에 따른 GNP 증가로 수입수요 증가, 단일규정적용 등에 따른 농산물 수출 비용 절감 등은 우리 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요인들이다.

이와 관련 우리 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와 EC간 농산물 교역현황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1990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6% 성장한 1억9천만 달러이다. 이것은 동년 우리 나라의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의 7.6%를 차지한다. EC지역에 대한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수출품목 구성상으로도 소수품목에 불과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의 경우 수산물과 잎담배가 우리 나라의 대EC 농수산물 수출액의 85%를 점하고 있다. 기타 인삼 및 인삼제품, 버섯류가 600백만달러 정도 수출될 뿐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유럽지역에 사과, 배, 감귤류주스 등이 소액이나마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EC회원국 중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의 주요 시장은 스페인(4천2백만달러), 서독(3천8백만달러), 프랑스(3천5백만달러)등이다. 그리스·포르투갈·아이랜드 등은 경제력이 낮고 농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능력이 제한적일 것이고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 나라는 향후에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기존의 수출시장을 넓히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품목으로는 기존에 어느 정도 수출되던 인삼과 인삼제품, 버섯류 등은 계속해서 수출증대를 꾀하는 한편 사과와 배 등 과실류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C전체로 볼 때 과실류와 감귤류의 자급도는 각각 84.1%, 76%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1989년). 이 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덴마크의 과실류 자급도는 20%에 불과할 뿐이다. 시장 개척 및 홍보, 그리고 EC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 등을 충족시킨다면¹² 이들 품목의 수출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영국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럽진출 전초기지로서 먼저

표4 우리 나라의 대EC 농수산물 수출실적, 1990.

단위 : 천달러

	프랑스	이태리	사독	화란	벨기에	그리스	덴마크	영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계
수 산 물	1,443	4,356	3,491	1,713	2,472	571	161	4,366	1,098	74	11,080	30,825 (3.0)
화 해 류	5	9	23	708	-	-	-	-	-	-	-	745 (40.0)
신 선 버섯	28	-	-	-	-	-	-	-	-	-	-	28 (-)
건 조 버섯	232	-	171	49	50	-	-	-	-	-	73	575 (2.3)
사 과	-	-	1	-	-	-	-	-	-	-	-	1 (-)
배	-	-	56	133	-	-	-	12	-	-	1	202 (3.0)
인 삼	134	190	1,114	112	47	7	4	196	30	-	1,477	3,311
조 제 수 산 물	26,794	6,088	745	2,290	5,675	480	443	5,567	1,482	-	26,237	73,601 (34.2)
조 제 버섯	-	-	69	-	-	-	-	-	-	-	-	48 (-)
(죽 순) 김 치	221	-	75	40	5	-	-	19	-	-	414	772 (4.3)
감 굴 류 주 스	-	-	463	318	303	-	-	-	-	-	-	1,084 (10.8)
인 삼 제 품	167	270	1,276	193	82	3	2	296	29	-	471	2,789 (4.7)
앞 담 배	1,141	545	27,276	3,348	3,326	560	-	18,077	2,065	715	984	58,037 (71.7)
기 타	4,717	2,533	3,633	1,036	1,902	133	288	834	18	1,080	1,793	18,331 (-)
계	34,882	13,991	38,372	9,940	13,860	1,754	1,262	27,367	4,722	1,869	42,530	190,549 (7.6)

()내는 우리 나라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에 대한 비율임

자료 : 관세청, 1990.

표5 EC제국에서 수입금지 과일

국 명	품 목
이탈리아	감귤류, 복숭아, 자두, 살구, 버찌, 배, 사과, 포도
스 페 인	감귤류, 복숭아, 자두, 살구, 배, 사과, 멜론, 수박, 파인애플(여름)

자료 : 關口洋一, 1991.

표6 식물검역 증명서 제출시 수출가능 품목

국 명	품 명
아 일 랜 드	감귤류, 자두, 살구, 버찌, 사과, 배
네 덜 란 드	아일랜드에서 네덜란드로 들어오는 휴대과일에 대한 증명서 필요
영 국, 독 일	불필요
프 랑 스	전과실(단 휴대과실은 불필요)
이 탈 리 아	위(표 5)이외의 신선과일
스 페 인	2kg 또는 5개이하의 휴대과실에 대해서는 증명서 첨부 불필요

자료 : <표 5>와 동일

공략해야 될 시장으로 판단된다.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은 다른 EC회원국에 비해 검역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모두 경매제도를 통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아직 우리 나라 과실류의 대EC 수출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나 대EC 과실류 수출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로 홍보의 부족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맛이나 품질면에서 우리 나라의 사과와 배가 유럽산에 비해 훨씬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개척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 농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이 크게 요청된다. 이를 위한 한 수단으로 EC지역에서도 농산물 무역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나. 부정적인 영향

EC통합이 우리 나라 농산물무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EC 농산물 수출시 새로운 비관세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 새롭게 제정 또는 조화될 동식물 검역 규정, 각종 기준 및 규격 등이 현행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되거나, 또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되더라도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 나라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EC는 1990년 부터 EC로 수출되고 우리 나라 양송이 통조림에 대해 원산지 증명의 첨부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EC로부터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단일화된 EC시장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EC가 우리 나라에 대해 그들의 관심 있는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1990년말 현재 EC로 부터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수입 총액은 2억 3천만달러로서 전년 대비 22.5%가 늘어났다(표 7).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중 EC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낙농제품(69.2%), 알콜음

¹² EC의 동식물 검역제도에 관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 EC통합대책실무위원회 농업정책실무대책반, 「EC통합대응 농업정책반 연구보고서」, 1990, pp.69~112.

표 7 우리나라의 EC농산물 수입현황, 1990

단위:천달러

	프랑스	이태리	서독	화란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덴마크	영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계
가금육	1,617	-	63	523	-	-	-	-	410	-	395	-	3,008(31.0)
낙농제품	4,885	130	32	5,934	3,353	-	-	122	145	-	-	-	13,801(69.2)
커피,차류	102	11	468	29	1,017	-	8	-	122	-	-	276	2,033(2.4)
곡물류	206	-	2,584	1,311	-	-	-	12,159	7,639	-	-	-	23,319(1.3)
전분류	3,097	-	1,138	300	796	-	-	587	-	-	-	-	5,918(24.1)
유지류	1,070	64	3,230	5,602	607	-	-	531	1,097	-	-	180	12,381(6.4)
돼지고기	48	3	8	74	-	-	-	2,697	2	-	-	-	2,832(51.7)
통조림													
당류와	1,013	14	1,011	3,051	125	-	-	347	1,621	-	-	8,811	15,998(3.8)
과자류													
코코아제품	751	244	2,494	12,091	1,982	-	-	329	1,829	-	87	1,606	21,413(42.0)
과채류	245	62	369	262	61	-	41	190	756	1,211	-	440	3,637(2.9)
조제품													
기타조제	597	8	3,248	1,138	573	-	-	1,159	3,583	-	3,388	-	13,694(24.1)
식품													
음료·알콜류	2,745	1,211	4,683	835	62	-	-	73	29,401	56	101	233	39,400(53.1)
기타	12,952	4,554	18,493	6,592	3,784	71	7,802	5,840	10,858	76	1,221	1,196	73,449(-)
계	28,533	6,301	37,741	37,742	12,363	71	7,851	24,044	57,463	1,343	4,797	12,742	230,991(5.5)

() 내는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비율임

자료 : 관세청, 1990.

료류(53.1%), 돼지고기통조림(51.7%) 등이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서독, 네덜란드로 부터의 수입비중이 높다. 앞으로도 EC가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 경우 현재 EC에서 과잉생산되고 있으면서 경쟁력도 갖고 있는 낙농제품과 육류 및 육류가공품에 대한 개방압력이 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EC통합으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대EC 농산물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미국 등으로 부터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표 8>은 미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에 EC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농산물 수출중 EC의 비중은 1986년 또는 198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EC역내에 과잉생산의 탓도 있겠지만 198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EC가입에 따른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에 따라 기인된 현상이라고 본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농수산물 수출중 EC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표8 미국의 농산물 수출 중 EC의 비중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식품 및 산동물	15.3	16.2	19.1	17.9	14.3	11.5
육류 및 육류조제품	11.8	11.9	12.4	13.3	10.2	5.8
낙농품 및 조란	2.0	6.1	2.1	1.7	4.3	3.4
곡물 및 곡물조제품	9.5	9.1	6.8	5.0	4.9	4.2
과 체 류	20.1	20.9	23.0	27.0	25.8	22.4
동 물 사 료	53.9	56.2	58.9	56.3	41.8	39.8
유 지 류	44.7	43.9	45.3	46.6	40.7	41.0

자료 : OECD, 1989.

육류 및 육류조제품, 곡물 및 곡물조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추가적으로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92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EC통합은 역내의 분업화·전문화를 촉진시켜 EC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농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적어도 농업부문에 있어서 EC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된 관심은 우리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가능성이 커지겠느냐 아니면 작아지겠느냐에 있다 하겠다.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통합으로 5~6%에 달하는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역내 무역장벽이 크게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1988년 역외국가로 부터 EC의 농산물 수입액은 646억달러로 미국 338억달러, 일본

473억 달러보다 많아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시장이다. 반면 우리 나라 농수산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EC의 비중은 각각 7.6%, 5.5%에 불과하여 농산물에 관한 EC는 거의 미개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C는 연간 100억달러가 넘는 과채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나라는 과채류의 대EC수출을 힘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수한 우리의 과일을 무역박람회 등을 통해 EC지역에 널리 홍보하고, 신설 또는 개방될 동식물검역 기준과 유통구조, 소비자 기호 등에 관한 연구와 정보수집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농산물로는 잎담배가 대EC 수출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수출 상품으로 유망한 인삼, 버섯류, 사과, 배, 감귤류주스 등 일부 수출이 되고 있는 농산물을 위주로 시장을 개척할 경우 EC시장 개척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

국별로는 현재 EC회원국 중 한국의 주요 시장인 스페인, 서독, 프랑스를 위주로 과일류의 자급도가 20%에 불과한 영국과 덴마크를 EC시장 개척의 전초기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0
- 김수용, “경제통합의 무역효과”, 「세종대학, 국제경제연구」, 제6집, 1986, pp.19-31.
- 도용환·백홍근, 「EC통합의 개관 및 시사점」, 신한중합연구소, 1989.
- 민병해, 「경제통합론」, 법문사, 1988.
- 민충기, “EC경제통합전망과 역외국에 미칠 영향”, 「사회과학논집」, 제21집, 1990,

- pp.21-47
- 박성조, 「통합시장EC」, 매일경제신문사, 1989.
- EC통합대책 실무위원회 농업정책 실무 대책
반, 「EC통합대비 농업정책반 연구 보
고서」, 1990, pp.69-112.
- 전국경제인 연합회,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
국경제의 진로」, 1989.
- 關口洋一, “農産物輸出と植物檢疫”, 「農業構造
問題研究」, 제169호, 1991, pp.73-117.
- Brealey Mark and Quigley Conor,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of the EC : 1992.
Handbook*, Graham & Trotman, 1989.
- Cecchini, P., et al., *The European Challenge
1992: The Benefits of a Single Market*,
Grawer, Aldershot, 1988.
- Christophe, Jean et al., *The European Single
Market*, Study Written by the Clud de
Bruxelles under the direction of
Jonathan, TODD, 1989,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EC),
*Completing the International Market :
An Area without Internal Frontiers, The
Progress Report Required by Article 813
of the Treaty*, COM(88) 650,
17November, 1988.
- _____,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Community*,
1991.
- _____,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Treaties Amending these
Treaties, Single European Act*,
Luxembourg, 1987.
- Jones, A.J. and El-Agraa, A.M., *The Theory of
Customs Union*, Philip Alan, 1981.
- Josling Tim, “Completing of the Internal
Market : Implications for Non-EEC
Countries,” *Food Policy*, Vol. 15, No.2,
April 1989., pp.152-160.
- Lipsy, R.Go., “The Theory of Customs Union:A
Benelal Survey,” *Economic Journal
(60)*, 1960.
- Manegold, “EC Agricultural Policy, 1988-89,”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Vol.57, No.1-3, 1989, pp.11
-46
-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Vol.2,
1989.
- Swinbank Alan, “Implications of 1992 for EEC
Farm and Food Policies,” *Food Policy*,
Vol.15, No.2 April 1990, pp.102-110.
- US Department of Commerce, *EC 1992:A
Commerce Department Analysis of
European Community Directives*, Vol.1-
3, 1989.
-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s*, Carg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ace,
1950.